



백목폰트21(주) (백목서체연구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국내 서체업계의 산 역사

“일본에 종속된 한글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시작한 일이 벌써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보람 또한 컸습니다. 제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서체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에 위치한 서체개발 전문 업체인 백목폰트21(www.font21.com).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부설 백목서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정환 대표는 지난 20여년 동안 서체 개발에 매진해 왔

던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목폰트21은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업계에서는 ‘백목체’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윈도우 프로그램 시장에 삼성 훈민정음 4.0이 출시될 당시 65종의 서체를 납품했고, 리눅스 소프트웨어의 한글 표준서체로 독점 10년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그 품질과 기술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중심엔 항상 김정환 대표, 그가 있다.

타고난 재능, 그것은 서체 개발을 위한 운명

“어릴적부터 글씨나 그림에 대한 재주가 있었어요. 선천적인 소질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환경미화 같은 행사가 있으면 학급게시판 작성은 항상 제 몫이었죠. 철학원을 운영하던 아버지께서는 이런 제게 ‘넌 커서 손재주로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체 개발을 위해 청춘을 바쳤고, 남은 인생도 그럴 것이니 결국 아버님 말씀대로 된 것으로 봐야겠죠”

타고난 재능 덕분이었을까. “육군본부만 빼고 안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파견에 파견을 거듭하며 차트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김 대표는 전역 후 중앙행정기관 총무처에서 별정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각종 양식을 작성하는 필경직이었다. 모든 주요 브리핑 보고서, 결재 서류들이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안정적이었지만 자신의 전공(시각디자인)을 살리기 위해 그는 3년간의 공직 생활을 접고 텐트 제조 회사에 입사, 상품개발부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비록 글자를 다루는 일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 대표가 서체 개발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다.

“일본에 종속된 한글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시작한 일이 벌써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보람 또한 컸습니다. 제 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서체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글 사용권 일본에 줄 수 없다” 개발 결심

“1985년 경이었을 겁니다. 총무로에 사진식자협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곳 사무국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글문자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만해도 인쇄·출판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대부분의 원고작업이 사진식자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유리로 제작된 수동 문자 자판에 레이저 광선으로 한 글자씩 찍어내는 방식이었다. 국내에서는 이 장비를 제조할 기술이 없던 탓에 전량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해 쓰고 있던 상황.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식자기에 탑재된 한글 자판 또한 일본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한글을 사용하는 댓가를 일본에 치러야 했던 셈.

전문 서체 개발 회사가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상황에서 결국 김 대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모순을 극복하고, 서체독립을 위해 자신이 직접 한글 글꼴 개발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이에 1986년 서체디자인실인 우더아트를 설립,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우더아트란 ‘우리말이 더욱 아름답게 트이다’라는 의미라고 하니 그의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고난의 시작, 그래도 나의 길을 가다

비록 의도는 좋았지만 멀쩡한 직장을 그만 두면서까지 서체 개발에 뛰어들어 그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부질없는 짓이라며 뜯어 말렸다. 하지만 김 대표의 굳은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그는 무려 하루 16시간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꼴 개발에만 매달렸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김 대표는 “가로세로 8cm의 방한지에 한자씩 글자를 새겨 넣는 윈도 레터링 작업은 중노동중의 중노동이었다”고 회고했다. 더욱이 26자로 표기되는 알파벳과는 달리 초·중·종성이 모여 음을 이루는 한글은 무려 2350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량 또한 엄청난 일. 결국 얼마 가지 않아 목과 손목 등에 심각한 디스크 증세가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당장 일을 그만 두고 쉴 것을 권했다. 그래도 그는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6개월 만에 모두 6종의 서체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정주기기, 삼성전자에 폰트 공급 시작

서체가 완성되자 이번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는 후속 서체 개발을 위한 연구비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결국 김 대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서체 도안을 짊어지고 직접 나섰다. 이런 그에게 당시 흥대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명지출판사에서 개발 서체들을 책으로 엮어주겠노라고 약속하며 또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줬다. 국내기술로 사진식자기를 개발보급하던 정주기기였다.

“정주기기 역시 서체의 중요성을 알고 윈도개발에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개발한 서체를 보고는 6종 모두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더군요.”

그 뿐만이 아니었다. 정주기기는 추후 개발되는 서체에 대한 모든 판매를 약속했다. 덕분에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이후 70여종을 개발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다. 안정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차츰 회사의 기반이 잡혀

가면서 김 대표는 우더아트와 개발 서체들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2년에 코엑스에서 3회에 걸쳐 200여종에 이르는 한글서체 전시회를 열었고, 그 결과 윈도우 프로그램 시장을 겨냥해 훈민정음 4.0 첫 출시를 앞두고 있던 삼성전자에 65종의 서체를 납품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자체 브랜드 서체인 ‘한글’ 시리즈 출시

1996년에 우더아트는 (주)우더아트로 법인 전환,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자체 브랜드 서체를 본격적으로 개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첫 작품은 바로 같은 해 10월 3일 한글날에 발표한 ‘한글1’ 101종 이었다. CD-ROM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세진컴퓨터랜드 등 당시 전국 유명 매장에서 판매되어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출판, 실사업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한글1은 윈도우용 프로그램이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훈민정음, 한글, MS워드와 같은 일반 워드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포토샵, 페인트샵, 엑셀, 코렐드로우, 문방사우, 컬러페이지 등 어디든지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트루타입폰트(TTF)이다.

김 대표는 “제품이 출시된 후 특히 각급 학교선생님들로부터 격려의 전화가 밀려드는 등 힘들었지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발판삼아 우더아트는 1998년에 두 번째 작품인 ‘한글2’ 155종과 ‘한글3’ (얼린서체)을 잇따라 발표하기에 이른다.

우더아트는 다시 1999년 11월에 200여종에 이르는 한글 3.0 버전인 ‘백묵 2000’을 발표했다. 백묵 2000은 글꼴의 대폭적인 교정과 각 프로그램에 대한 100% 호환을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거쳐 완성됐다.

1만100여개의 아트폰트가 지원되고, 사각명조, 사각고딕, 사각숫자와 함께 각종 약물 우편번호가 삽입됐다. 무엇보다 백묵 2000은 출판, 편집, 족보제작, 신문제작 등을 하는데 있어 확장한자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확장한자 한눈에 보기’ 기능으로 보기에서 워드로 복사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쇄·출판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했다.

리눅스 표준서체 선정, 그리고 국제 유니코드의 개발

1999년에 우더아트에서 지금의 상호로 변경한 백묵폰트21은 같은 해 10월 리눅스에 4종의 서체를 공급, 한국리눅스 표준서체로 선정되며,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해마다 새버전을 구매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대신 필요한 글자만 날개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 구조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현재 백묵폰트21 홈페이지에서는 수백종에 이르는 다양한 유·무료 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백묵폰트21은 또한 2001년에 1년여 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리눅스 기반의 국제 규격 유니코드를 완성, 다시 한 번 그 기술력을 입증시켰다. 유니코드란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코드 값을 쓰는 각 나라별 언어를 16비트 체제로 확장해서 6만5536자의 영역 안에 표시하는 표준안이다. 이를 이용하면 화면에서 글자가 깨지는 현상 없이 모든 나라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 유니코드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는 평생 사용되지 않더라도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글자를 입력해야 한다. 일례로 한글은 1만 1172자, 한자의 경우 무려 2만992자를 필요로 한다. 김 대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리눅스가 일반화 되지 못했지만 향후 리눅스 업체들이 성장하면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묵 2000은 글꼴의 대폭적인 교정과 각 프로그램에 대한 100% 호환을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거쳐 완성됐다. 1만100여개의 아트폰트가 지원되고, 사각명조, 사각고딕, 사각숫자와 함께 각종 약물 우편 번호가 삽입됐다. 무엇보다 출판, 편집, 족보제작, 신문제작 등을 하는데 있어 확장자를 한눈에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특징.

전문가용 서체 개발로 차별화 노력

백묵폰트21은 2003년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주목,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서체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장, 비석, 비문, 리본 등에 쓰이는 전문가용 서체가 바로 그것. 이미 출시된 리본전용 서체인 용봉체는 회원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폰트와는 달리 전문가용 서체는 고가판매가 가능하고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업체간에 서체 공유를 할 가능성이 적어 불법복제에 대한 부담이 낮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추사 김정희의 서체를 유니코드에 접목시켜 전세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고유 서체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백묵폰트21이 개발한 글꼴을 전세계인이 쓰도록 하는 것이 김 대표의 최대 목표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백묵서체연구소 홈페이지와 한글시리즈 CD

